

전면적 반민자당 투쟁 선언

전대협의장 구속 계기로 각대학 규탄 집회 연이어

지난24일 송갑석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전대협)의장이 구속됨에 따라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오늘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전대협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대변인은 지난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기적인 용인·성남 지구총학생회연합회장들이 이미 헌정권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에따라 백민정당 학도는 반민자당 투쟁을 벌여나가 불법탄압된 송갑석의장을 구출하고 민자당의 장기집권 야욕을 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대협은 오는 10일까지 '송갑석의장 구속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오늘부터 각 대학 총학생회장의 단식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에따라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25일 '송갑석의장 불법연행규탄' 구속 규탄 및 내각제개헌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학생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각 캠퍼스별로 가졌다.

또한 결의대회가 끝난후 가두 시위과정에서 김중근(체육·3) 제

육과대학 사회부장이 전경이 단진 돌에 왼쪽눈을 다쳐 실명위기에 놓여있으며 현재 경희의료원에 입원중이다.

한편 같은날 밤 학생1백여명이 수원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송갑석의장구출을 위한 철야농성을 벌였으며 다음날인 26일 '투쟁보고 및 폭력정화 규탄대회'가 학생회관 앞에서 있었다.

이날 규탄대회중 김경진(수학·4)자연대 학생회장은 '송갑석 전대협의장의 연행, 김중근군의 실명위기는 노경림의 범죄와 전경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이번 두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노경림과도 전경선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대협은 오는 30일 송갑석의장 석방을 위한 2차 규탄집회를 각 학교별로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식총장 평화상 수상 아인슈타인 재단으로 부터



조영식 총장은 지난 24일 오후 4시 본교 평화학대학원에서 열린 '아인슈타인 평화상'을 수상했다.

아인슈타인 국제학술재단 위원장인 닐스 아타르세는 이날 수상식에서 '조영식 박사의 교육을 통한 세계평화의 공헌을 인정하여 수상자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학생의 날 기념사

"9일 오전 4시 35분. 뜰 한가운데 있는 국기게양대를 일주자로 둘러싸고 잠시 멈춰 서서 묵상했다. 이윽고 미군장교 두 사람이 게양대 앞으로 나아가 지휘관의 호령하에 바깥을 걸었다. 지금까지 걸었던 길보다 더 길게 걸었다. ...이어 다시... 일장기대신 성조기가 울렸다"(매일 신보 1945년 9월)

한없는 사람은 노동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민주주의의 세조국과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몸뚱이를 바쳐주고 있을 때 그들은 왔다. 침략이 동맹으로 분장하고 예속이 독립으로 위장되는 신식민의 시대. 기만한 반공의 무기를 들고 움직이는 휴전선을 전투기에 싣고 그들은 왔다. 자주의 길을 외치던 몸뚱이들! 검거, 투옥, 학살로 전담하고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가 들어서고 38선을 중심으로 냉전이라는 두꺼운 한랭전선이 또다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조국의 하늘은 달수를 채우지 못한 태아와 함께 피를 뿌리며 작두날 위에서 질려갔다.

민족의 운명이 외세종치라는 바늘에 목이 걸려 흔들려나. 반외세 자주독립의 횃불을 들고 민족의 바다 한가운데 준엄히 역사를 밝히던 청년학도의 투혼이 되살아 오는 오늘, 이땅 한 바다는 일장기가 성조기로, 초가집이 고층건물로, 임금이 대통령으로 바뀌었을뿐 '창살없는 감옥' 그대로다.

1990년 학생의 날은 돌아오는 데, 강남의 한부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현대 80평짜리 아파트 4동을 사서 벽을 트고 320평짜리 공간으로 만들었다. 보안사 본제로 전권이 뒤집고 있는 이때, 안기부는 140억에서 990억으로 내년 예산을 490.

2%증가시켰다. 나라의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의 UR협상을 한국에서는 의리로 지키겠다는 약속을 쓰더니 공무원 봉급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추곡수매가 한자리수 인상과 천만 농민을 35만으로 줄여야 선진국이 된다고 한다.

선진국불만, 집세폭등 경제파탄의 기로에서 화려한 북방정책의 밑거름으로, 장기집권의 철마를 더 빨리 달리게 하려고 소련에 23억을 차관을 무릎꿇고 바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UN에 단독이라도 가입하겠다고 법석이다.

이러한 낯두리 뒤엔 무너지는 농촌의 소리가 공단, 황토, 학원 거리 구석구석에서 아우성치는 민중의 분노가 있다. 90년 다시 돌아오는 학생의 날은 62년전 학생회 창설의 여의있는 가을일 수는 없다.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던 강의실에서 노교수의 잔잔한 음성을 듣거나 교문앞에서 돌맹이를 던지거나 조국과 민족의 역사는 언제나 자주정권년의 헌신을 요구해 왔다.

저임금, 저작가, 극악한 근로조건, 가련취직, 주택과 토지, 부익부 빈익빈, 민주복지, 군부독재, 살인악법,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파업의 자유, 학원지주, 민주정치, 온갖 불평등 조약과 협정, 전쟁 연승훈련, 핵무기, 주한미군, 미군민행, 독재자원, 외세문화, 두개의 한국전쟁음모, 기만적인 북방정책.

이 모든 예측·독재·분단을 딛고 자주·민주·통일을 앞당기는 길위엔 언제나 자주정권년의 함성과 기개가 있을 것이다. 내각제 개헌의 홍보가 빨라지고 UN단독기군도 서둘러 진행되는 90년 11월 3일. 누군가 청년이여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묻거든 민족 자주·민주주의·조국통일의 횃불을 높이 든 청년학도를 보게 하라.

송규봉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양캠퍼스 가을 대동제 개최

서울 31일, 수원 30일부터 체육대회·문화행사 마련

경희인의 하나됨을 위한 '고향골 통일문화제'와 '서천골 통일제전'이 서울은 31일, 수원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된다.

체육대회와 문화행사, 대동놀이 등이 있겠는 이번 가을 대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향골 통일문화제◇
△31일(전야제) = 오후 3시부터, 영상기획(송규봉과 2대총학생회), 영은어린이방 울동, 연극(민중연대사업부 공동주최)
△11월1일(열차), 달리는 고향인) = 오후 2시부터, 축구등 체육대회 결승전, 장미물결기·기네스북게임·월인경기·응원단 시범, 통일운동대회(과별 참여) 오후 7시부터, 노학연대의 밤(자매결연 노조 3개 사업장과 공동 문화행사)
△2일(고향인의 밤)
◇서천골 통일제전◇
△30일(전야제) = 오후 3시 30분부터, 통일광장, 통일페스티벌
△31일 = 동아리 학생회관 입주행사(2시), 탈무드장기공연(1시), '무지개 그늘' (1시30분 민주주의)사화대 노래대 합동공연, 제3회 민족학교(6시) 체육교육관 시청각실) 한반도 통일문제 주제로.

과학생회 경연대회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공과대학 운동장에서 '과학생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통일제전 전야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과학생회 경연대회는 개사곡, 연극, 춤극 등 과학생회를 선전할수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 참가할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 각 단대학생회에서 받는다.

교수 채용과정, 교심위건의안 수용

'교수채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학생의 참여와 자원의 공개요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학교측과 서울캠퍼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의 갈등이 해소됐다.

교심위는 교수채용과정의 공개요구가 학교측과 평행히 맞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4차례의가 결렬된 지난23일 오후6시 부총장실을 접견, 농성에 들어갔으며, 이기 간중 2차례의 회의를 통해 학교측이 서류공개등을 양보함에 따라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내용을 보면 △교수·학생의 민주적 의사수렴하기 위한 채용과정의 개선 △각 학과별로 실정에 맞는 교수·학생대표기구 구성을 권장 △중장기 교수충원계획은 각 학과에서 마련한 교수충원 신청안을 기초로 하여 수립·시행하며, 교수·학생·교직원등으로 구성된 대학발전위원회(가칭)와 협의한다 등이다.

한편 수원캠퍼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는 지난24일 부총장실에서 전공교과개편 마무리, 교수충원, 교수채용과정의 학생참여등의 사항으로 학교측과의 협의를 가졌다.

우재민 부총장, 문광식(건축·4) 총학생회장 권한대행등이 참

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회의에서 전공개편에 대해 학교측은 전공개편은 4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과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언제든지 개편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각 과의 교수·학생 대표협의기구 건설에 대해 학생·학교측이 동의하였으며 추후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하였다.

교수충원에 대해서 학교측은 매년 10명정도씩 충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수채용과정의 학생참여는 교수선발하기전 학생들의 공개견해를 가진다는 것에만 합의하였다.

동아리 학생회관 입주식

수원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학생회관 앞광장에서 동아리학생회관 입주식을 개최하며 동문대 '팔각', 소리산하·바람개비의 축하공연이 있다.

화국은 의견 수렴 없는 학사행정

▼우리 옛속담에는 '밀지도 본전'이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을 풀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업이나 일이 성사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대로 모르면서, 일단 한번해봐서 손해를 보는 게 없다고 판단, 모험주의적으로 행동을 하는 처사를 말하는 것이다.

▼요즘 학교측이 '밀지도 본전'이라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 일이 '들뜬' 나발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인즉, 학교측이 학과신설을 위해 5개학과를 선정해서 문교부에 학과신설신청을 하였는데, 요행스럽게도 그중 중북학과인 물리학과, 화학과가 문교부에 각30명씩 야간학과를 신설할수 있도록 '당첨'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은 학교측이 사전준비없이(?) 신청을 했기때문에 수

원캠퍼스 해당학과 교수와 학생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데서 찾아볼수가 있다. 그리하여, 신문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기 이전까진 해당학과 교수와 학생은 '3중복학과' 문제에 대하여 알지못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신문에 발표가 나왔을때 자연대 물리학과, 화학과 학생들은 22일 즉각 집회를 열었으며, 이후 40여명이 부총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학생측은 총장과 의면에서 문교부 물리학과, 화학과 야간신설의 전면폐지와 장단기 발전대책을 공개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중복학과'의 야간학과 신설을 전면폐지 할것이다'라고 구두로 약속받았다고 한다. 학교측의 이러한 안일한 일처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교수와 학생, 직원간이 어려움을 겪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의 '3중복학과' 문제는 학교측의 모든 행정이 공개적이며,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해야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학교측이 앞으로도 행정을 비공개적으로 해간다면 그것은 학생, 교수에게 신뢰를 잃을수 밖에 없을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밀지도 본전'이라는 식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해, 궁극적으로 처음 일처리를 서둘러 한 것이 뒷일을 끼지개한 학교측은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교측만의 일방적 잘못은 아니다. 현 우리 교육구조의 모순속에서 파생된 일련의 사건으로 보아지는 이번 사태를 보면 실질적인 우리의 교육구조를 경획인 스스로가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1월3일 학생의날 총궐기를 위한 기획광고

학생의 날을 맞는 청년학도는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다르게 없습니다

학생의 날 청년학도의 총궐기는 현 범죄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며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송갑석 전대협의장의 즉각적 석방을 원한다.

일제의 폭거에 당당히 맞섰던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해 볼 때 학생의 날을 맞는 청년학도는 마냥 그 의미만을 되새기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비록 당시에도 '엘리트'라는 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식민통치아래에서 단 한사람도 자유롭지 못함을 알고 일제에 맞서 의연히 싸웠던 우리의 선배들은 독재정권이 장기집권의 획책하고,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져 있고, 외세가 음흉한 눈으로 지켜 보고있는 이 시대에 청년학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척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도 나약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선배들에 대해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수 있습니다.

"선배들의 당당한 모습이 식민통치를 종식시켰다면 우리는 조국통일을 앞당겼습니다"라고.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회



불끈진 주먹에 피어나는 민족해방, 청년학도의 염원입니다